

# “中슈퍼리그, 비유럽권 최대 리그 부상”

英 가디언紙 관측… 하미레스·리카도 굴라트 등 젊고 주목받는 스타 영입

중국의 슈퍼리그가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나 멕시코 등을 제치고 가장 큰 비유럽권 축구 리그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의 유력지인 가디언은 1일(현지시간) 중국의 슈퍼리그 소속 프로구단(장수 수닝)이 최근 첼시의 하미레스를 2000만 달러 이상,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예상했다.  
가디언은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가 베컴, 램파드, 알리, 제라드, 카카 등 (한물 간)스타들을 영입한 반면 중국은 리카도 굴라트, 헤나토 아우구스토 등 젊고 주목받는 전성기의 스타들을 영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 귀안이 브라질 코린티아스의 헤나토 아우구스토를 브라질에서 받은 연봉의 4배를 주고 영입한 사례를 제시하며 더 많은 중국 구단들이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 스타들을 뺏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슈퍼리그의 경기당 평균관중수도 현재는 MIS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같은 균형이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명 선수 영입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평균관중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가디언은 중국 슈퍼리그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평균관중이 올해 2만5000명을 돌파한 뒤 2018년 독일 분데스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중국 슈퍼리그 평균관중은 2만 2000명으로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비해 200명 정도가 적었다.  
신문은 중국 프로축구의 가파른 성장 배경으로 ▲(최고권력자의) 정치적 의지 ▲자금력 ▲시설 ▲야망 등을 꼽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지구촌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스포츠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을 지못미라고 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후 부유한 기업가들이 축구관에 속속 뛰어들고 있으며, 관을 키우고 있다는 것

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저우 에버그란데다.  
광저우 에버그란데는 2010년 이후 선수와 감독 영입에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클럽을 1600만 달러에 매입한 에버그란데는 지분의 절반을 4년 뒤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에 무려 1억9000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비유럽 리그 중 어느 곳이 가장 좋은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것(중국 프로축구의 성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가 금융 균형을 과시하는 데 따른 수많은 변화의 한 가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민근기자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 익산서 자원봉사 '흔흔'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이 동계 합숙훈련 중에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펜싱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50여명은 지난 1일 창에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창해원, 청록원, 흥조원, 햇빛드림 시설에 대하여 청소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어메이징 스포츠클럽 펜싱팀과 멘토 결연을 맺고 윈포인트 교습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비인간적목적인 펜싱을 알리기 위해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유적전시관과 미륵사지 박물관을 견학하며 지역 문화탐방을 실시하며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은 지난달 17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실내체육관에서 동계합숙훈련을 실시하며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런던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미너겸겸 김지연 선수, 권영준 최신희, 황선아 선수 등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익산이 펜싱의 명가답게 전국 최고의 전지훈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정왕일 기자

여민지, 8개월 만에 윤덕여호 복귀

한국 여자 축구의 차세대 스트라이커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여민지(23·스포츠포토·사진)가 8개월 만에 윤덕여호에 복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2016리우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에 대비한 마지막 소집 훈련에 참가할 26명의 선수 명단을 확정 2일 발표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여민지의 합류다.  
여민지는 지난 2010년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에서 한국을 우승으로 이끌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캐나다월드컵 직전 무릎 부상으로 하차해 아쉬움을 남겼다.  
여민지의 복귀로 공격진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민근기자



# 경정 오늘 개장… 96일간 1536경주 대장정 돌입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경륜 경정사업본부는 올 시즌 경정경주를 3일 경기 하남시 미사리경정장에서 개막한다고 2일 밝혔다.  
올 시즌 경정은 12월 29일까지 수요일과 목요일 48회에 걸쳐 96일간 총 1536경주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지난달 중순부터 지속된 한파로 경정장 수면이 얼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개장을 위해 경정운영단 직원들은 얼음과의 사투를 벌여왔다.  
3일 오전 11시부터 미사리 경정장 야외 무대에서 공단 이창섭 이사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즌 개막을 알리는 개장행사를 갖는다.  
올해 경정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경주로 한걸음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이 시도된다.  
우선 1일 15경주에서 16경주로 한 경주가 더 개최됨에 따라 좀 더 많이 경정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오전 11시 30분에 1경주 소개항주를, 12시 정오에 1경주를 시



경정경주에 참가한 선수가 흰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달리고 있다.

작한다.  
2016년형 감응형 모터보트가 신규 투입되고, 기존 선수별 프로펠러 개별관리방식에서 모터 및 프로펠러 고정지급방식으로 변경된다. 즉 모터와 프로펠러를 한 세트 로 하여 일괄 추첨에 따라 선수에게 지급

된다.  
그리고 출발위반으로 인한 고객환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발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출발위반 연간 2회시 주선보류가 되고 위반횟수에 따라 출전 제재기간도 늘어난다.  
또 하반기에는 온라인스타트 방식도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스타트 방식은 지정된 출발장소에서 모터보트가 정지상태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방식으로 현행 플라잉스타트 방식과 혼용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고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경주방식을 선사하고, 재미를 주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경정 관계자는 “올해는 다양한 경주와 운영방식 도입으로 어느 해 보다 다채로운 경정이 될 듯하다. 특히 모터와 펠러의 고정지급은 선수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 같다”며 “보다 기량이 평준화 되면서 개인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 송영한, 세계랭킹 113위… 91계단 ‘썩썩’

세계랭킹 1위 조던 스피스(미국)를 꺾은 송영한(25·신한금융그룹·사진)이 세계랭킹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송영한은 2일 발표된 세계남자골프랭킹에서 지난주 204위에서 113위까지 뛰어 올랐다.  
송영한은 전날 아시아인투어 SMBC 싱가포르

트로폰에서 스피스를 꺾고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주까지 송영한의 세계랭킹 포인트는 평균 0.85점에 불과했다. 한 차례 우승으로 점수를 1.38점까지 끌어올렸고 91계단을 상승했다.  
송영한의 상승세에 굳어져 가던 2016리

우올림픽 남자골프 대표팀 선발에 새 바람이 불게 됐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 세계랭킹 순으로 2명을 내보낼 수 있다.  
유력한 후보는 안병훈(25·CJ오쇼핑)과 김경태(30·신한금융그룹)였다. 안병훈은 지난주보다 1계단 떨어진 27위(3.13점)에, 김경태는 4계단 내려간 66위(2.06점)다. 이제 송영한이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LetsRun FARM 장수 (구.장수육성목장)**

우리나라 말 산업을 견인하는 전초기지입니다.

LetsRun FARM 장수 는

경주마 및 승용마를 아우르는 명마생산의 메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천연의 목가적 풍경과 다양한 말 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최고의 힐링 쉼터를 제공합니다.

명마 생산과 육성의 메카 LetsRun FARM 장수